

<易經>에 나타난 禮

黃 鉦 源*

Li in Yi—Jing

Hwang, Jeung-Won

제1. 中國과 禮主刑輔의 傳統

東洋社會의 傳統的인 秩序規範은 禮와 刑이라는 二重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禮가 一次的인 秩序規範이고 刑은 二次的으로 禮를 輔助하는 秩序規範으로서 이러한 禮主刑輔사상이 東洋사회를 지배해왔다. 이것을 흔히 禮主刑輔의 法思想이라고 부른다. 中國 古代에 있었던 禮와 刑에 대한 기록은 古書에 일찍 등장한다. 最古의 서적이라는 <尙書>에 보면 舜傳에 “度量衡을 共同으로 規律하고 五禮를 닦았다.(同律度量衡 修五禮)”는 기록이 있어서 傳說적인 國家인 夏나라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벌써 五禮가 있었다고 傳하고 있고, 또 刑에 대해서도 같은 舜傳에 “五刑을 시행하되, 세 곳에서 다섯가지를 시행하다.(五刑有服 五服三就)”는 기록으로 唐虞에 五刑이 있었다고 하며, 夏나라에 와서는 禹刑이, 商나라에 와서는 湯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商代까지의 禮와 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文獻이 없어서 그 種類와 內容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周나라의 禮와 刑은 周公이 편찬한 <周禮>나 <儀禮>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져 있다.

禮의 種類를 이야기 할 때 흔히 ‘五禮’나 ‘六禮’나 ‘九禮’를 예로 드는데,¹⁾ 그중에는 冠婚喪祭처럼 生活의 儀式을 다룬 것도 있고, 朝聘軍旅처럼 國家의 行사의 절차를 다룬 것도 있으며, 賓主와 飲酒의 先後順序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원래 五禮는 <周禮>의 春官 太宗伯의 職掌에서 吉·凶·軍·賓·嘉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시작인데, 당시에는 <周禮>에서 春官의 일부를 지칭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漢, 晉, 隋를 거치면서 唐의 <大唐開元禮>에 와서는 五禮가 152개의 儀式으로 정착되면서 王家

* 國際大學 法學部 教授

1) 五禮는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이고, 六禮는 冠禮·婚禮·喪禮·祭禮·鄉飲酒·相見禮이며, 九禮는 冠禮·婚禮·朝禮·聘禮·喪禮·祭禮·賓主禮·鄉飲酒禮·軍旅禮를 말한다.

의 의식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易經에서 연구할 禮는 이러한 五禮나 六禮에 해당하는 儀禮가 아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의 禮는 원래 中國 商나라에서 형성되었다가 周初에 와서 周公이 정리보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中國 周初에 형성된 <周禮>와 <儀禮>의 내용에는 작게는 家族관계에서 부터 크게는 國家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秩序를 禮라는 範疇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禮의 機能에 대한 설명으로는, 禮에 대한 儒家의 논문집으로 볼 수 있는 <禮記>에서 잘 밝히고 있다. “무릇 禮는 親疎를 定하고, 嫌疑를 결단하고, 同異를 구별하고, 是非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다.”라고 하며, 또 “道德과 仁義도 禮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고, 教訓과 正俗도 禮가 아니면 완비할 수 없고, 分爭과 辨訟도 禮가 아니면 判결할 수 없고, 君臣上下와 父子兄弟도 禮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고, 宦學과 事師도 禮가 아니면 親할 수 없고, 班朝와 治軍과 位官과 行法도 禮가 아니면 威嚴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고 한 글을 보면,²⁾ 당시에 秩序規範인 禮가 규제하는 범위가 社會생활 전반에 미쳤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禮의 效能과 內容에 대해서는 “朝覲의 禮는 君臣의 義를 밝히고, 聘問의 禮는 諸侯가 서로 존경하도록 하고, 喪祭의 禮는 臣子의 恩혜를 밝히고, 鄉飲酒의 禮는 長幼의 순서를 밝히고, 婚姻의 禮는 남녀의 구별을 밝힌다.”고 하면서 禮가 禁亂하는 秩序規範으로 생겨난 점을 강조한다.³⁾ 한편 <春秋左傳>에도 “禮는 國家를 經營하고, 社稷을 安定시키고, 國民간의 순서를 정하고, 後嗣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 하여 禮의 政治적 社會적인 役割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禮의 특징은 差等的인 觀點에서 身分階級에 따라 각각의 分數를 정하여 周나라의 왕실을 비롯한 貴族階級의 特권과 政權을 유지하는 秩序規範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와 달리 刑은 주로 平民과 奴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규범위반을 平等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다루는 규범으로, 처음에는 적국의 捕虜나 奴隸를 다루기 위한 도구였는데 점차 농경사회 的 발달로 平民의 범죄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강제적인 秩序規範으로 변모한 것이다. 禮와 刑은 이처럼 그 發生의 경로가 다르므로 내용과 적용대상과 위반의 효과가 判 異하지만, 두 규범이 封建國家인 周나라를 統治하는 秩序規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자연히 둘 사이에 主從의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는 왕과 諸侯와 卿大夫가 속한 貴族階級이 사회를 주도하던 시대였으므로 이들의 特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던 禮가 제일차적인 규범으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庶民階級을 강제하는 刑은 하 는 수 없이 보조적인 秩序規範이 되고 만다. 中國古代의 禮는 周初에 周公의 손을 거쳐 정

2) 夫禮者 所以定親疎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辨訟 非禮不決 君臣上下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位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禮記·曲禮上>

3) 孔子曰 安上治民 莫善於禮 此之謂也 故朝覲之禮 所以明君臣之義 聘問之禮 所以使諸侯相尊敬也 喪祭之禮 所以明臣子之恩也 鄉飲酒之禮 所以明長幼之序也 婚姻之禮 所以明男女之別也 夫禮 禁亂之所由生 <禮記·經解>

4) 禮 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 <春秋左傳·隱公十一年>

리 되었다고 하는데, 이 周代의 禮가 근대까지 中國사회를 지배한 절대적인 秩序規範의 代名詞이다. 周公은 明德慎罰을 주장한 文王의 법사상을 이어 받아서 禮主刑輔를 법제도의 基調로 삼았는데, 특히 儒家가 後世에 官學으로 득세하면서 이러한 禮主刑輔를 계승하여 二千餘年 國家경영의 方편으로 활용한 것이다.

古代 中國의 경우에는 天子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비록 天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君主가 秩序規範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神意나 天意를 내세우지 않고 家族宗親의 原理인 宗法과 階級差等의 原理인 封建이라는 두가지 질서원칙을 根幹으로 禮를 만든 것은 매우 稀貴한 현상이다. 즉 古代中國의 秩序規範에는 다른 古代國家와는 달리 神授法的 요소가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禮라는 글자가 敬神과 祭祖의 儀式을 象形한 것에서 비롯했다는 통설에 따르면 자연을 두려워하는 원시종교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商을 거쳐서 周나라에 들어와서는 禮가 당시의 농경사회를 경영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國家制度和 社會生活의 절차의식과 個人生活의 행동지침 까지 포함하는 총괄적인 秩序規範으로 탈바꿈하였고, 그 과정에서 神授法的인 부분은 退色하고 宗法제도와 봉건제도라는 두 개의 질서원칙을 확립하여 禮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秩序規範을 구성한 것이다. 다른 古代 문화사회와 같이 中國에도 刑이라고 부르는 法이 있었으나 禮를 보다 선호한 것은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禮가 刑보다는 教育的인 성격이 강해서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2. <易經>과 帛書<周易>의 출현

흔히 占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古代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현상인데, 이러한 占法은 다분히 神의 啓示를 구하는 迷信의인 것으로 생각되어 대체로 學問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경우에는 <易經>이라는 周나라 때 사용하던 占冊이 二千餘年에 걸쳐 三經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주역>은 占치는 책이라는 이유로 秦始皇의 焚書의 亂을 가장 잘 모면한 책으로 유명하다. <주역>은 분명히 占書인데도 불구하고 中國 二千餘年の 역사속에서 계속하여 儒家의 존중을 받아왔던 까닭에, 그 내용이 큰 修訂이나 變化를 겪지 않고 原本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 내려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古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상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周初의 禮를 찾아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본다. 占辭는 그 當時의 생활상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殷末周初에 성립되었다는 占冊인 <易經>에도 당시 생활에 존재한 禮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易經>에 나타난 당시의 禮를 占辭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周初의 秩序規範의 내용을 연구함과 동시에 中國에서 가장 원시적인 禮를 한 번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보고자 한다.

그러나 古書중의 古書인 <易經>은 초기에는 竹簡에 필사하여 전해오다가 帛書로 바뀌

어 계속 필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古來로 異種의 여러 板本이 전해오고 있어서 古체적인 占辭에 들어가면 原文이 무엇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다. 원래 <易>이라고 부르는 古代 中國의 占法은 太卜官이라는 占을 담당하는 官吏가 거북의 등판이나 소의 肩胛骨을 가지고 그 吉凶을 占했다고 하며, 吉凶을 占친 내용과 占斷은 그 龜甲과 獸骨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그 的中 여부를 附記해 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占辭의 기록인 甲骨文이 1899년에 殷墟인 小屯村등지에서 十萬片 정도로 多量 出土되어 殷代의 占辭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易經>의 原型이라고 볼 수 있는 이 占辭들에 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12월에 中國의 長沙라는 곳에 있는 馬王堆三號 漢墓에서 帛書가 28種(合計12萬餘字)이나 발굴하였는데, 그 帛書중에 通行本 <周易>과 다른 異本인 <易經>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흔히 “帛書 <周易>”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는 <易經>과 그 해설서인 <易傳>이 같이 들어 있다. 이 帛書<周易>에는 通行本과 다른 내용이 더러 있어서 易學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易經>에서 그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帛書에 古字나 古음이 상대적으로 많고,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글자는 다르지만 文義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帛書에 한 글자가 더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帛書의 글자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帛書의 발굴은 易學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동안 專門家에 의한 몇 件의 研究論文이 발표되면서 學界의 주목을 받고 있다.⁵⁾ 通行本 易經보다 한 글자가 더 첨가된 경우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山風蠱卦의 上九의 爻辭가 通行本<易經>에는 “不事王侯 高尚其事”로 되어 있는데 帛書<易經>에는 맨뒤에 “凶”字가 한 글자 더 있고, 또 地火明夷卦의 初九의 爻辭가 通行本에는 “明夷于飛 垂其翼”인데 帛書에는 “明夷于飛 垂其左翼”으로 “左”字가 한 글자 더 있다. 또 鴻漸于木 或得其桷 无咎인데 帛書에는 “鴻漸于木 或直其窳 殼 无咎”로 “殼”字가 한 글자 더 있고 “得”이 “直”으로 “桷”이 “窳”로 서로 다르다. 한편 글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는 天風姤卦의 初六의 爻辭가 通行本에는 “繫于金柅”인데 帛書周易에는 “繫于金梯”로 되어 “繫”字가 “擊”字로 되고 “柅”字가 “梯”字로 된 것이나, 또 天地否卦의 九五의 爻辭에 있는 “繫于苞桑”에서도 “繫”자가 “擊”자로 된 것이 있고, 또 風雷益卦의 六四의 爻辭가 通行本에는 “利用爲依遷國”으로 된 것이 帛書에는 “利用爲家遷國”으로 “依”字가 “家”字로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易經>의 원문인 占辭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異本인 筆寫本이 많아서 占辭 본래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儒家에서 <易經>은 難解한 경서로 취급하여 왔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帛書<周易>의 발굴은 향후 <易經>해석

5) <文物>雜誌, 1984年第3期(總334期)에 “馬王堆帛書<六十四卦>釋文”이 公布되면서, 張政烺의 “帛書<六十四卦>跋”, 于豪亮의 “帛書<周易>”, <中原文物>잡지, 1989年第2期에 李學勤의 “從帛書<易傳>看孔子與<易>”이 각각 발표되었고, 1992년 10월에 韓仲民의 <帛易說略>이 출판되면서 논문과 저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에 새로운 견해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易經>을 해석한 부분인 易傳을 살펴보면, <繫辭傳>만 명칭이 같고 그 외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짜여 있다. 通行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卦辭와 爻辭를 해석한 <象傳>과 <象傳>이 帛書에는 없고, 또 <說卦>, <序卦>, <雜卦>도 없다. 그리고 통행본에는 없는 <二三子>, <易之義>, <要>, <繆和>, <昭力>이라는 五篇의 易傳이 붙어 있어서 通行本과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通行本과는 <繫辭傳>만 같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므로, <易傳>부분은 <계사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易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帛書주역의 <易傳>은 대부분 乾卦 坤卦와 기타 몇 개의 卦만을 추려서 그 卦辭와 爻辭를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해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정리가 미처 안된 상태의 <단전>이나 <상전>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帛書주역의 <易傳>의 발굴은 特記할 만한 사항을 몇가지 내포하고 있다. 우선 孔子와 易傳에 대한 종래의 학설대립을 해소할 만한 자료가 다수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즉 通行本과 달리 孔子가 “五行”이라는 말을 사용한 기록을 <二三子>와 <要>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서, 종래 易에는 음양사상만 있고 오행사상은 없었으므로, 孔子도 오행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反證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⁶⁾ 특히 卜翼이 과연 孔子의 親述이나에 대해서는 宋代에 歐陽修가 <易童子問>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후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왔으나, <要>篇에 “孔子가 늙어서 易을 좋아하여 집에서는 자리에 두고, 나갈 때는 자루에 넣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고, 또 子貢이 孔子에게 “夫子께서도 筮占을 믿습니까”하고 질문하자 孔子가 “나는 그 德義를 볼 뿐이다”라고 하면서 “後世의 선비가 <易> 때문에 孔子를 의심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그 德을 구할 뿐이다. 나하고 史巫는 길은 같으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어서,⁷⁾ 종래에 孔子가 卜翼을 著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昭力>에는 孔子가 군신의 義와 사농공상의 직업에 따르는 義에 대하여 爻辭를 예로 들어서 해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당시의 身分階級에 대한 禮를 언급한 내용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昭力>제1장에서 昭力이라는 제자가 孔子에게 易에 나타난 ‘卿大夫의 道理’에 대하여 묻자, 孔子는 地水師괘의 六四의 爻辭인 “軍隊가 君主를 補佐한다”와, 山天大畜괘의 九三의 爻辭인 “軍馬를 訓練시키고 戰車를 정비해 둔다”와, 同卦 六五의 爻辭인 “거세한 돼지를 우리에게 가두어 둔다”는 세 개인 爻辭를 가지고 君主를 보필하는 臣下인 卿과 大夫가 지킬 태도와 의무를 설명한 占辭라고 하였다.⁸⁾ 먼저 “師左次”는 軍

6) 聖人之立正也 必尊天而敬衆 理順五行 天地无<二三子>. 又地道焉 不可以水火金土木盡稱也 故律之以柔剛 <要>
7) 夫子老而好易 居則在席 行則在囊...後世之士疑丘者 或以易乎 吾求其德而已 吾與史巫 同途而殊歸者也 <要>제3장. 李學勤. 전계논문, 41面
8) 昭力問曰 易于卿大夫之義乎 子曰 師之左次 與閑輿之衛 與饋豕之牙 參者 大夫之所以治其國而安其君者也 <昭力>제1장

師가 君主를 잘 보필할 것을 말한 것이고,⁹⁾ 다음 “閑輿之衛”는 戰爭이 나기 전에 미리 戰車를 중심으로하여 軍隊를 훈련시켜 둘 의무를 다루고, 끝으로 “豮豕之牙”는 戰爭에서 사용할 軍隊와 무기들을 잘 정비해 두지만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國防임을 가리킨 내용인데, 昭力에 나온 이 占辭들은 孔子가 臣下의 禮 가운데서 특히 軍事를 담당하는 臣下가 국방력을 강화하여 戰爭에 대비하되, 가급적 用兵하지 않고 君主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 占辭라고 하겠다.¹⁰⁾

또 同篇 제2장에서 昭力이 國君의 道理를 질문하니, 孔子가 地水師괘의 九二의 爻辭인 “王이 세 번 命을 내린다”와, 水地比괘의 九五의 爻辭인 “王이 三面에서 물이를 한다”와 地天泰괘의 上六의 爻辭인 “白邑에 알려준다”라는 세 개의 爻辭로 國君之義를 설명한다.¹¹⁾ 처음 師괘의 “王이 세 번 命을 내린다(王參賜命)”는 爻辭는 軍신이 친하게 자주 만나서 국사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占辭로, 王이 臣下를 가까이 하여 그 현우를 살펴서 직무를 자주 하달하여는 것이 나라를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¹²⁾ 다음 比卦의 “三面에서 물이를 한다(王參毆)”는 爻辭는 王이 狩獵을 할 경우에도 사냥거리를 三面에서만 몰아가고 한면을 띄어 주어서 사냥감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仁德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에 든 “자읍에서 알린다(白邑告命)”는 占辭는 君主가 賢臣을 통해서 百姓에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先教後罰을 말한다.

또 同篇 제3장에는 孔子가 商夫와 邑餘와 戎夫와 處女의 禮를 설명한 글이 있다.¹³⁾ 즉 “乾의 潛龍은 商夫의 義요, 无妄卦는 邑餘의 義요, ‘경작과 수확을 하지 않는다’는 戎夫의 義요, ‘보름달이 지났다’는 것은 處女의 義다”고 하는데, 商夫는 商人階級을 지칭하고, 邑餘는 邑리의 長을 말하니 士人階級이고, 戎夫는 軍人階級을 말하고, 處女는 家정에 있는 婦女子를 가리킨다. 이처럼 <昭力>篇은 전적으로 軍신과 職業人의 禮를 구별한 점에서 古禮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9) <師·六四> 師左次. 종래 “軍隊를 左側에다 주둔한다.(《周易正義》)”고 해석하거나 “軍隊를 後退시킨다(《易傳》·《本義》)”고 해석하는 것이 通例이었다. 그런데 帛書의 <昭力>에는 孔子가 “師左次”를 해석하기를 “師는 人之聚요, 次는 國君의 立位이니, 事件이 생기면 능히 그 君主를 補佐한다”고 하여 이 爻辭로 軍師의 忠誠義務를 설명하고 있다.

10) 易曰 “豮豕之牙 吉” 夫豕之牙 成而不用者也 <昭力> 제1장

11) 昭力問曰 易有國君之義乎 子曰 師之王參賜命 與比之王參毆 與泰之自邑告命者 參者國君之義也 <昭力> 제2장.

12) 子曰 昔之國君者 君親賜其大夫 大夫親賜其百官 此之謂參治. 君之自大而亡國者 其臣·以陰謀 君臣不相知 則遠人無勸矣 <昭力> 제2장

13) 乾之潛龍 商夫之義也, 无妄之卦 邑餘之義也, 不耕而穫 戎夫之義也, 良月畿望 處女之義也 <昭力> 제3장

제3. <易經>에 나타난 禮

1. 禮의 내용

古代 中國사회의 禮가 크게는 國家제도를 정하고 작게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동시에 각종 사회제도까지도 통제하는 秩序規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易經에서 禮에 속하는 占辭를 가려내는 것은 용이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 즉 같이 질서규범이었던 ‘刑’字에 관한 占辭는 <易經>에 直接 나타나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禮’字를 언급한 句節은 占辭에서 한 글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易經>의 최초 해설서인 <十翼>에 “禮”字가 8回 등장할 뿐이니, <文言傳>에서 “嘉會足以合禮”, <象傳>에서 “雷在天上 大壯 君子以非禮不履”, <繫辭傳>에서 “知崇禮卑”와 “以行其典禮”와 “禮言恭”과 “謙以制禮”를 합해서 네 번, 그리고 <序卦傳>에서 “物畜然後有禮”와 “然後禮義有所錯”이 두 번 나오는 것이 그 全部이다.

원래 殷나라에서는 대부분의 國家행사를 미리 龜甲으로 점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 때에 기록한 占辭가 甲骨文에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甲骨文의 占辭 전부가 당시의 사회생활 이모저모를 吉凶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問卜한 사항은 매우 多樣하여 크게는 國家大事인 戰爭과 祭祀와 狩獵에서 작게는 婚姻과 疾病에 이르고 있다. 한편 <易經>의 내용은 殷末周初에 있었던 占辭와 당시에 일어난 事件을 周公이 政治의 目的에 따라 意圖의으로 編纂한 것이라는 主張이 있을 정도로 歷史的 事件이 많이 등장하므로,¹⁴⁾ 당연히 殷末周初에 있었던 禮에 관한 內容도 그러한 事件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本稿는 <易經>의 占辭에 나타난 禮의 기록을 問卜한 內容을 중심으로 살펴서 禮를 종류별로 모아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류방식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中庸>에 따라서 禮의 근본원칙으로 볼 수 있는 ‘親親’의 仁과 ‘尊賢’의 義를 기준으로 禮를 분류할 수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五禮나 六禮에 맞추어서 살펴볼 수도 있다. <易經>에 나타난 占辭에서 당시의 禮를 체계적으로 整理하려면, 우선 자주 나오는 禮文을 중심으로 禮를 분류한 후에 다시 그것을 총망라하는 原理들을 찾아보는 것이 順序에 맞다고 생각되므로, 家族關係에서 출발하여 君臣關係를 거쳐 國家的인 大事에 관한 禮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父子間의 禮

(1) 家父長制의 시대

周初에 확립된 嫡長子의 父權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宗法제도는 父權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家父長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가부장제는 농경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大家族制度가 필요하고 大家族制度

14) 李大用, <周易新探>, 北京大學出版社, (1992)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家長의 지위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성된 가부장제도는 嫡長子繼承을 강조하게 되면서 父子間의 질서확립에 필요한 禮를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에서 家族은 각자의 위치가 정해졌다. 風火家人卦의 彖傳에서 “家人에 嚴君이 있으니 父母를 가리킨다. 父父子子하고, 兄兄弟弟하고, 夫夫婦婦하여서 家道가 바르게 되고, 正家하니 천하가 安定된다.”고 묘사한 것은 당시의 家父長制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⁵⁾ 이 家族들의 위치에서 생기는 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春秋左傳>에서 “父는 慈하면서 尊敬을 받아야 하고, 子는 孝하면서 箴諫하여야 하고, 兄은 사랑하면서 友愛가 있고, 弟는 公경하면서 따르고, 夫는 溫和하면서 올바르고, 妻는 溫柔하면서 바르다”고 한 해석이 禮의 모범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2) 子息의 孝

易經에는 子息의 禮로서 孝를 구체적으로 例示하는 例가 있다. 즉 父母가 잘못하여 저지른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蠱卦는 子息의 禮를 이야기한 전형적인 卦로서 占辭 전체가 父母의 잘못으로 생긴 蠱惑과 敗壞를 子息이 바로 잡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우선 山風蠱괘의 初六과 九三과 六五의 爻辭에 모두 “아버지의 蠱惑을 바로 잡는다.”는 占辭가 있고, 六四에는 “아버지의 蠱惑을 諫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또 九二에는 “어머니의 蠱惑을 바로 잡는다”는 占辭가 있다.¹⁷⁾ 子息이 父母를 섬기는 구체적인 例를 “幹父之蠱”로 표현하는데, 특히 初九에서는 “子息이 있으면 아버지는 허물이 없다. 위태로워도 마침내 吉하다”고 하여 못난 짓을 한 아버지에게 子息이 있다면 그 子息이 잘 처리할 것이니 念慮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占辭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蠱惑을 바로 잡는 것은 “吉”하거나 “无大咎”인데 反하여 어머니의 蠱惑을 바로 잡는 것은 “不可貞”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의 잘못은 아예 허용되지 않았다는 당시의 배경을 읽을 수가 있다. 이것은 父權制 사회의 특성이 占辭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蠱卦가 예시한 孝行은 ‘幹’과 ‘裕’의 두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자는 저지른 蠱惑을 해결하여 정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諫言으로 蠱惑을 중지시키는 노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古代 씨족사회에서 孝는 집안과 國家를 지탱하는 中樞의 役割을 담당했고, 자녀의 불효는 重罰로 다스렸는데, 重火離卦의 九四의 爻辭에는 “不孝子가 돌아 왔다. 불에 태워서, 죽여서, 내 버린다”고 한 占辭가 있다.¹⁸⁾ 이것은 당시 子息의 父母에 대한 孝는 가장 기본적인 禮로 이를 어기면 國家에서 형벌로 엄중하게 다스렸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5) 家人 利女貞. 彖曰 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父父子子 兄兄弟弟 夫夫婦婦 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16) 君令而不違 臣共而不貳 父慈而敬 子孝而箴 兄愛而友 弟敬而順 夫和而義 妻柔而正 姑慈而從 婦聽而婉 禮之善物也 <春秋左傳>昭公26年

17) <蠱·初六> 幹父之蠱 有子 考无咎·終吉. <九二> 幹母之蠱 不可貞. <九三> 幹父之蠱 小有悔 无大咎. <六四> 裕父之蠱 往見吝. <六五> 幹父之蠱 用禮

18) <離·九四> 突如其來如 焚如 死如 棄如

(3) 父母의 慈

집안의 어른인 父母가 그 子息을 잘 거두어야 한다는 禮를 지적하는 占辭로 산수몽괘의 九二가 있다. “며느리를 맞아 들이면 吉하다. 子息이 家事를 繼承한다”는 占辭는 父母가 子息을 책임지고 키워서는, 子息이 장성하면 장가를 보내어서 가사를 계승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는 父母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父에게 이렇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親親의 예가 가장 현저한 것이 부자간의 禮이므로 당연한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大家族을 유지하려면 父慈子孝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3. 夫婦間の 禮

(1) 男尊女卑와 禮

夫權의 강조로 男尊女卑가 서서히 자리를 잡던 西周시대에 가정에서의 부부의 役割分擔과 성차별에 대한 占辭는 風火家人괘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家人은 ‘집안 사람’이라는 뜻인데 卦名이 말하듯이 이 괘는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家庭의 소속원이 각각 지키는 禮를 占辭로 하고 있는데, 우선 卦辭의 “利女貞”은 집안일은 婦女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집밖의 농사일등은 남편의 몫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六二의 爻辭는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한다(在中饋)”는 占辭로 부녀의 구체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다. 또 九三의 爻辭는 “집안 사람이 조심스레 행동하면 길하나, 婦子가 웃음소리를 내면 마침내 어렵다”고 하면서 집안사람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上九의 爻辭에는 “罰이 있다. 威嚴이 있으면 마침내 吉하다”고 하여서,¹⁹⁾ 家長의 위엄과 處罰권한을 인정하고 있어서, 婦女子의 순종과 家父長의 지배를 대조적으로 예시한 것은 당시의 男尊女卑 내지는 家父長制의 가정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雷風恒卦의 九五의 爻辭가 “德을 恒常 지킨다. 婦人은 길하나, 夫子는 凶하다”고 하여 婦女는 집안일만 담당하므로 항상 그 부덕을 지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하지만, 남자들인 夫子는 외부에서 활동하므로 한가지 일에만 매달려서 融通性이나 發展性이 없어진다면 凶하다고 한다.²⁰⁾ 夫婦를 内外로 구분하던 당시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恒其德”의 내용을 다르게 평가한 풍조를 발견하게 되는 占辭라 하겠다. 이러한 종류의 占辭는 몇 개 더 있는데, 예컨대 晚婚에 대하여도 남녀에 따라 각기 다른 占斷을 내리고 있다. 즉 澤風大過괘의 九二의 爻辭에 “老夫가 女妻를 얻는다. 不利함이 없다”고 하면서, 九五 爻辭에 “老婦가 士夫를 얻는다.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하여,²¹⁾ 晚婚을 점친 경우에 남자는 ‘无不利’라는 일종의 勸獎하는 占辭인데 비하여 여자에게는 ‘无咎无譽’라

19) <家人·九三> 家人嗃嗃悔厲吉 婦子嘻嘻終吝. <家人·上九> 有孚威如終吉

20) <恒·六五> 恒其德貞 婦人吉 夫子凶

21) <大過·九二> 老夫得其女妻 无不利 <大過·九五> 老婦得其士夫 无咎无譽

는 내용의 無關心한 占斷을 한 것은 당시의 男尊女卑의 사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占辭上의 성차별 현상은 一夫多妻를 허용하던 당시의 사회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2) 一夫多妻와 禮

周初에 一夫一妻가 원칙인지 一夫多妻가 보편화되었는가를 말해주는 분명한 占辭를 찾기가 어렵다. 山地剝卦의 六五에서 “고기를 꿰듯이 宦人을 쓰면 총애하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王이 后이외에 夫人이나 世婦, 嬪, 妻, 妾을 여럿 둘 수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雷澤歸妹卦에 나오는 媵妾이라는 제도가 제후의 혼례에서 보편화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 일부다처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표본은 이른바 七去之惡이라는 이혼사유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雷澤歸妹卦에 七去와 유사한 占辭가 있다. 동괘의 六三에 “딸을 시집보내면서 언니를 媵妾으로 같이 보낸다”고 하면서 “언니가 여동생과 같이 돌아 온다”는 占辭가 있어서 이혼을 허용한 예를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占辭는 媵妾으로 언니를 쓰는 경우인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신부인 동생과 媵妾인 언니가 같이 시집에서 쫓겨난 사례를 말하고 있다. 다만 <象傳>은 언니를 媵妾을 삼는 것은 동생이 妻가 되고 언니가 妾이 되어 不當하므로 媵家에서 돌려 보낸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집간 신부가 媵妾과 함께 돌아오는 것은 이른바 합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占辭이다. 이러한 媵嫁의 풍속은 일찍이 堯舜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尙書·堯典>에 舜이 堯의 두 딸인 娥皇과 女英을娶한 기록이 있다. 아마도 古代社會의 群婚의 유습인 것 같은데, 아뭏든 男尊女卑 내지 一夫多妻의 풍습이 당시에 있었다는 증거로 주목할 만하다.

(3) 化粧의 禮

부인은 집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화장을 하던 禮가 있었던 것 같다. 즉 부인들이 假髮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水火既濟卦의 六二에 “부인이 가발을 잃었다. 찾지 않아도 七日이면 얻는다”는 占辭가 그것이다.²²⁾ 다만 가발의 사용이 禮에 해당하는지 부유한 집에서만 가능한 사치의 일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4. 婚姻의 禮

易經에는 혼인에 관한 占辭가 많아서 전체 占辭의 十分之一가량 된다. 혼인이 人倫之大事인 만큼 그에 관한 占辭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水雷屯, 山水蒙, 山火賁, 澤山咸, 風山漸, 雷澤歸妹卦등에 婚禮에 관한 占辭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하다. 이하에 類似한 占辭를 모아서 항목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22) <既濟·六二> 婦喪其茀勿逐 七日得. ‘茀’은 머리장식인데 오늘날의 가발에 해당한다.

(1) 同姓不婚의 禮

同姓不婚의 禮에 대해서는 易經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만한 占辭가 없고, 政略結婚이나 納妾을 점치는 占辭에 간접적인 자료가 나온다. 西周 初期에 周公이 정한 同姓不婚政策은 본래 王族과 異姓諸侯와의 政略結婚을 이용한 정권유지라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인데,²³⁾ 地天泰괘의 六五 爻辭에 나오는 “帝乙이 歸妹한다”는 것은 故事를 서술한 占辭이다. 帝乙은 商나라의 임금으로 紂王의 父王인데, 周나라가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 딸을 周王인 文王에게 시집 보낸다. 周公은 商代에 있었던 이 政略結婚을 그 근거로 하여 異姓婚의 原則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특히 歸妹라는 이름을 가진 卦의 占辭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雷澤歸妹괘의 卦辭가 “征伐하면 凶하다. 이로울 것이 없다”고 하여 諸侯의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不利하다고 하는 한편, 爻辭에는 모두 딸의 婚姻에 관련된 占辭들만 붙여둔 편집태도에서, 위협을 수반하는 征伐을 諸侯와의 政略結婚으로 대체시키고자 한 周公의 意圖를 추리할 수 있다. 즉 雷澤歸妹괘는 王이 不順한 諸侯를 정벌하기 보다는 그 異姓諸侯에게 딸을 시집보내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周公의 思想을 그대로 나타낸 卦로 볼 수 있다. 이처럼 泰卦와 歸妹卦는 당시 동성불혼의 원칙에 따라서 異姓을 찾아서 징략적인 婚姻을 하는 풍속이 占辭에 간접적으로 반영된 例로 볼 수 있다.

한편 夫權위주로 男尊女卑가 정립되면서 妾을 두는 내용의 占이 나오게 되는데, 妾의 姓도 異姓이어야 하므로 妾姓을 모르는 경우에는 점을 쳐서 納妾의 吉凶을 결정하는 습속이 있었다. 즉 天山遯卦의 九三에 “臣下와 첩을 얻는 것은 吉하다(畜臣妾吉)”와 火風鼎卦의 初六에 “妾을 얻어 子息을 구한다면 허물이 없다(得妾以其子无咎)”는 占辭는, 妾의 姓이 同姓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凶이 아니므로 納妾하더라도 무난하다는 占斷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2) 請婚

請婚에 관한 占辭로는, 水雷屯괘의 六二에 “말(馬)을 타고 머뭇거리다. 賊寇가 아니고 婚媾이다. 女子가 許婚하지 않는다. 十年이 되어서 許婚한다”와 同卦의 六四에 “말을 타고 머뭇거리다. 婚媾를 求한다”는 爻辭가 있고, 山火賁괘의 六四에 “白馬가 털이 길다. 賊寇가 아니고 婚媾이다”는 爻辭가 있고, 또 火澤睽괘의 上九의 爻辭에 “먼저 활을 당겼으나, 뒤에 활을 거둔다. 賊寇가 아니고 婚媾이다”가 있다. 請婚과 연관된 占辭들을 보면 屯卦의 六四를 제외하면 모두 “匪寇婚媾”라는 占辭가 등장하는 점이 공통적인데, 이것은 賊寇와 請婚을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는 당시의 情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청혼자들이 대부분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古代의 掠奪婚의 遺習이 占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周初에는 맞선을 보지 않고 仲媒결혼으로 父母들의 청혼과 허혼만으로 자녀의 혼인이 결

23) 娶于異姓 所以附遠厚別也 <禮記·曲禮上>

정되던 시절이라 혼인 당사자들은 상대방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혼인식용 치렀던 시절이다. 그런데 풍지관괘에는 六二의 爻辭에 “옛본다. 여자가 치는 점은 이롭다”는 占辭가 있어서, 몰래 新郎감을 훑쳐보려는 신부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3) 納幣

또 新郎집에서 보내는 納幣에 관한 것으로 山水蒙卦의 六三에 “女子를 取하지 말아라. 金夫를 보고, 몸이 없으니, 이롭지 않다.”는 占辭는 幣物에만 관심이 있고 新郎에게는 관심이 없는 女子를 나타내는데, 그런 女子는 며느리로 取하지 말라는 뜻이다. 山火賁卦의 六五의 爻辭의 “신부의 집을 꾸민다. 幣帛이 초라하다. 어려우나 마침내 吉하다”는 占辭는 당장에 幣帛은 적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면 吉하게 된다는 내용인데,²⁴⁾ 納幣의 예와 관련된 占辭들은 모두 幣物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을 警戒하고 있어서 당시에도 婚事에 경비가 과다했던 점을 추리해 볼 수 있다.

(4) 親迎

新郎이 新婦를 친히 영접하는 親迎에 관한 占辭로는, 山火賁卦의 初九에 “발을 꾸민다.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고 한 것이 있는데,²⁵⁾ 이 내용은 혼례식에서 新郎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수레에서 내려서 발로 걸어가서 친히 영접한 禮를 말한 것이 있다. 또 동괘 六二에 “수염을 꾸민다(賁其須)”는 것도 新郎이 친영할 때 수염을 단장하는 占辭로 보인다. 澤山咸卦의 卦辭에 “女子를 取하면 吉하다(取女吉)”는 占辭가 있는데, <象傳>에서 “男子가 女子의 아래에 위치한다(男下女)”고 해설한 것은 少男인 艮卦가 少女인 兌卦의 아래에 위치한 卦象을 통하여서 新郎이 정중하게 신부를 親히 迎接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5) 媵嫁制度

당시의 婚禮에서 독특한 것은 여자가 시집가면서 媵妾으로 姊妹를 동행하는 이른바 媵嫁制度이다. 雷澤歸妹卦의 初九의 爻辭에 “딸을 시집보내면서 여동생을 媵妾으로 같이 보낸다.”는 占辭를 보면,²⁶⁾ 당시에 貴族階級은 딸의 혼사에 여동생인 娣를 媵妾으로 동행하는 예법이 있었다. 同卦 六五의 爻辭는 “帝乙이 딸을 시집보낸다. 딸의 容貌가 여동생의 美貌만 못하다. 달이 보름을 지났다. 吉하다”는 것도 商나라 王 帝乙이 嫡女인 딸을 周나라 文王에게 시집보낼 때에 庶女인 여동생을 媵妾으로 보낸 故事를 占辭로 쓴 占例이다. 한편 同卦 六三의 爻辭는, “딸을 시집보내면서 언니를 媵妾으로 같이 보낸다”고 하면서 “언니가 여동생과 같이 돌아 온다”는 占辭인데²⁷⁾ 이런 占辭를 통해서 제후의 혼례에 媵妾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4) <賁·六五> 賁于丘園 束帛 芟芟 吝 終吉

25) <賁·初九> 賁其趾 舍車而徒

26) <歸妹·初九> 歸妹以娣 跛能履 征吉

27) <歸妹·六三> 歸妹以須 反歸以娣

(6) 貞問吉凶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혼인의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周初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니, 결혼을 勸獎하거나 反對하는 占辭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른바 혼인에吉한 것으로는 澤山咸卦의 卦辭인 “여자를 취하면 吉하다(取女吉)”와 風山漸卦의 卦辭인 “여자가 시집가면 吉하다(女歸吉)”가 대표적인데, 前卦는 젊은 남자가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젊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後卦는 혼사가 예법에 맞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표현한 卦이므로 좋다고 한 것이니, 혼례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適例이다. 한편 凶한 혼인으로는 天風姤卦의 卦辭에 “女子가 壯하니, 女子를 取하지 말아라(女壯勿用取女)”가 대표적인데, 집안사람인 여자는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氣勢가 壯한 여자는 忌避對象이었음을 말해준다. 또 風山漸의 九三에 “夫는 전쟁에 나가 돌아 오지 않고, 婦는 孕胎하나 養育하지 않는다”는 占辭도 凶하다.²⁸⁾

앞에서 인용한 占辭말고도 吉凶悔吝을 언급한 占辭는 많다. 예컨대 雷澤歸妹의 上六에 “여자가 廣주리를 들었으나 열매가 없고, 남자가 羊을 찢렸으나 피가 없다. 이로울 것이 없다”는 占辭는 불리하다는 경우이고,²⁹⁾ 風山漸卦의 九五에 “婦가 삼년간 孕胎하지 못한다(婦三歲不孕)”는 占辭는 혼인을 하면 子息을 壬申할 수 없는 경우이고, 重雷震卦의 上九에 “婚姻에 是非가 있다(婚姻有言)”는 占辭는 婚姻후에 말썽이 생긴다는 경우이다.

5. 君臣間的 禮

(1) 君令臣共의 原則

天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周代의 君主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으므로, 군신은 上命下服의 관계에 묶여 있었다. 君主의 권력은 無所不爲로서 절대적이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爻辭로는 天수송괘의 上九에 “王이 鞶帶를 하사한다. 하루에 세 번이나 박탈한다”는 占辭가 適例인데,³⁰⁾ 君主가 賞罰의 與奪을 마음 내키는대로 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封建제도를 國家조직과 운용의 기본原理로 하는 周에서 天子와 諸侯間, 諸侯와 卿大夫間의 군신관계는 원칙적으로 君令臣恭이라는 尊賢의 禮에 따라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 <易經>에는 군신의 禮에 관련되는 占辭가 많으나, 君臣의 禮만을 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는 重天乾卦와 重地坤卦가 있다. 君主의 도리를 설명하는 重天乾卦의 九二와 九五에 다같이 “大人을 만나야 이롭다”는 爻辭가 있는 것은 臣下는 반드시 大人을 起用하라는 尊賢의 禮를 君主에게 요구하는 占辭이다.³¹⁾ 또 臣下의 예를 논한 重地坤卦의 卦辭에 “앞서면 迷하고 뒤따라가면 主公을 得한다”고 한 것과 六五의 爻辭가 “黃裳이 크게 吉하다”고 한 것은 臣下는 스스로 뒷자리나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君主를 上位에 모시고 따

28) <漸·九三> 鴻漸于陸 夫征不復 婦孕不育 凶 利禦寇

29) <歸妹·上六> 女承筐无實 上刳羊无血 无攸利

30) <訟·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31) <乾·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乾·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라야만 한다는 尊君의 禮를 선언한 것이다.³²⁾ 특히 <乾·上九>의 “亢龍은 후회한다”는 글은 臣下의 의견을 무시하고 獨裁를 일삼는 君主를 경계하는 내용이고, 또 <坤·上六>의 “龍이 들판에서 싸운다. 그 피가 검고 노랗다”는 爻辭는 세력을 가진 臣下가 君主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內戰이 발생한 것을 그리고 있다.³³⁾ 澤水困卦의 九二의 爻辭에 “朱黃色 앞가리개가 바야흐로 온다.(朱紱方來)”고 하고, 한편 九五의 爻辭에는 “붉은 색 앞가리개 때문에 困難하다.(困于赤紱)”가 있는 데, 원래 주황색으로 된 앞가리개인 朱紱은 天子나 諸侯가 쓰고 붉은 색 앞가리개인 赤紱은 大夫가 사용하여 君臣이 身分에 따라 服裝을 달리했던 禮法을 반영하고 있다.³⁴⁾ 군신이 각각 특유한 예를 지켜야 하므로, 義務에도 주목할 사항으로 臣下의 忠誠만 요구하지 않고 君主의 愛民도 강조하고 있는 占辭가 보인다는 점이다.

(2) 臣下의 禮

먼저 臣下된 자가 君主를 도와서 政事에 종사할 의무를 강조한 占辭가 있으니, 山風蠱卦의 上九의 爻辭에 “왕후를 섬기지 않고, 고상하게 산다. 凶하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³⁵⁾ 蠱卦는 가정과 國家가 실패하여 파괴의 직전에 도달한 상황을 상징하는 궤로서 이런 경우를 만난 臣下가 고상한 德을 가꾸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凶하다고 본 것이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帛書<周易>에 나오는 <昭力>제1장에는 孔子가 臣下의 義를 나타낸 占辭로 지수사괘의 六四와 산천대축괘의 九三과 六五를 열거하고 있는데, 세 爻辭가 모두 軍隊나 戰爭과 관련하여 國防擔當인 臣下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臣下가 왕에게 朝貢을 바치는 占辭로는 火天大有卦의 九三의 爻辭에 “공이 天子를 향응한다.”는³⁶⁾ 것이 있고, 戰爭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전리품을 君主에게 바치는 占辭로는 火地晉卦의 卦辭에 “康侯가 전리품인 말을 王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³⁷⁾

또 臣下의 禮로 國難이 있을 때에 君主의 부름이 있으면 즉시 軍隊를 끌고서 부름에 응할 것이 요구되는데, 水地比卦의 卦辭에 “不寧한 나라가 쳐들어 올 때에 後夫는 凶하다”는 占辭는 君主의 召集에 늦게 응하면 이 禮를 어겨서 失禮入刑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³⁸⁾

32) 坤 先迷後得主. <坤·六五> 黃裳 元吉.

33) <乾·上九> 亢龍 有悔. <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34) 高亨.<周易大傳今注>, 中國, 齊魯書社, (1998), 300面

35) <蠱·上九> 不事王侯 高尚其事 凶. 원래 通行本 주역에는 占辭 끝에 “凶”字가 없는데, 帛書주역에는 凶字가 하나 들어 있다. 通行本の <象傳>은 “不事王侯하는 志操은 可히 本받을만 하다”고 하였고, 歷代의 易學者들이 하나같이 ‘뜻을 高尚하게 하여 道德과 仁義에 노니는 物外의 한가한 賢人과 君子의 길’을 택한 臣下를 사례로 들면서 그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山風蠱卦는 敗壞가 極에 達하여 정리 내지 처리작업이 요청되는 상황을 상징하는 궤에 해당하므로, 비록 上九에 해당하는 臣下라고 할지라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凶하다고 한 帛書<周易>의 글이 原文과 가깝다고 하겠다. 同旨: 于豪亮, 前揭論文, 15面.

36) <大有·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37) <晉> 康侯用錫馬

38) <比> 吉 原筮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3) 君主의 禮

한편 君主의 禮를 말하는 占辭로는, 전술한 重天乾괘의 九二와 九五의 爻辭에 “大人을 만나야 이롭다”는 이른바 尊賢의 禮 이외에도 君臨의 예를 언급한 것이 더러 있다. 즉 地澤臨卦는 君主가 百姓에 君臨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占辭로 보고 있는데, 그 初九와 九二의 爻辭는 같이 “咸臨”으로 明德의 자세로 百姓을 감화시키는 禮教를 그리고 있고, 六三의 “甘臨”은 臨時變通에 치우친 자세를 경계하고 있고, 六四의 “至臨”은 親政으로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허물이 없는 君臨이라고 한다. 六五의 “知臨”은 지혜롭게 君臨하여야 吉하다는 占辭이고, 上六의 “敦臨”은 敦厚한 자세로 君臨하면 吉하다는 占辭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孔子는 帛書주역의 <昭力>제2장에서 君主의 禮로 지수사괘의 九二와 수지비괘의 九五와 지천태괘의 上六의 爻辭를 열거한 것을 보았는데,³⁹⁾ <師·九二>의 “王이 세 번 君命을 내린다(王三錫命)”는 占辭는 항상 將帥를 가까이 두어서 잘 감독하여 하루에도 세 번을 만나서 君命을 下達하여야만 軍紀가 제대로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比·九五>의 “王이 三面에서 물이를 한다. 앞에 있는 금수는 놓친다(王用三驅失前禽)”는 占辭는, 王이 巡狩를 통하여 諸侯國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도 그 仁이 微物인 禽獸에게도 미치도록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세가 되면 “諸侯國의 사람들이警戒하지 않아서 吉하다(邑人不誠吉)”고 한 것이다. 또 <泰·上六>의 爻辭에 “城이 구덩이에 무너진다. 군사를 쓰지 마라. 自邑에 알려준다. 占이 어렵다”는 占辭는,⁴⁰⁾ 城邑의 울타리인 城壁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는 王이 戰爭을 하지 않고 邑人인 百姓에게 祭祀와 군사와 납세에 관한 의무를 가르친다는 의미로서, 戰爭을 하려면 부국강병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水雷屯卦의 九五의 爻辭인 “식량을 조금 비축한다. 小事는 吉하고, 大事는 凶하다”는 글은,⁴¹⁾ 적은 식량을 비축하고서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리임을 말하면서 君主된 자는 그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宗親間的 禮

(1) 運命共同體

宗親을 다룬 괘로는 天火同人괘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六二의 爻辭에 “同人이 宗으로 모인다”는 占辭는,⁴²⁾ 이것은 宗親들이 모여서 大事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宗親이 運命共同體라는 점을 보여주는 占辭로 天火同人卦의 九五에 “同人이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 큰 군사를 동원하여 서로 만난다”는 爻辭가 있다.⁴³⁾ 정권을 쟁취하는 戰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宗親 전체가 滅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39) 脚注 10) 參照.

40) <泰·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自邑告命 貞吝

41) <屯·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42) 同人于野 亨 利涉大川 利君子貞. <同人·六二> 同人于宗 吝

43) <同人·九五> 同人先號咷而後笑 大師克相遇

상황을 보여주는 占辭로 보인다. 한편 地水師卦의 上六의 爻辭에 “大君이 天命을 받아서, 開國하고 承家한다. 小人은 쓰지 않는다”는 占辭는,⁴⁴⁾ 大君이 天命을 받아서 천자가 되어 周王朝를 개국할 때에 周왕실의 宗親으로 封國建侯하고 그 親族으로 卿大夫를 삼아서 承家를 하되 周王室의 一家親戚이 아닌 사람은 등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宗親중심의 宗法制度를 반영하고 있다.

(2) 大宗과 小宗

이 宗親관념은 親親의 原理로서 父系중심의 氏族제도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도 各地를 분봉하여 諸侯를 세우는 封建제도가 결합되면서 宗法을 기반으로 하는 分封제도가 정립된다. 즉 天子의 嫡長子가 王位를 세습하면서 大宗이 되고, 次子이하의 王子형제는 모두 國토를 나누어서 諸侯가 되어 小宗이 된다. 다시 諸侯의 嫡長子가 諸侯의 자리를 세습하면서 그 집안의 大宗이 되고, 次子이하의 아들은 卿大夫가 되어서 그 집안의 小宗이 된다. 이렇게 周나라 宗親의 大宗과 小宗이 고리를 이루어서 천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안으로는 宗親의 親親을 강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밖으로는 軍신의 尊尊을 통하여 周王室 一家의 王國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周의 封建制度라는 宗親에 의한 分封制度이다.

왕이 大宗으로 宗親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占辭로는 師卦의 上六 이외에도 風火家人卦의 九五의 爻辭에 “王이 집에 온다. 걱정마라. 吉하다”는 글이 있는데, 大宗인 왕이 宗家에 찾아 오니, 宗親들은 걱정할 일이 없고 萬事가 如意하다는 내용이다. 大宗인 왕이 할 최초의 작업에 대해서는 水雷屯卦의 卦辭나 初九의 爻辭에서 “諸侯를 封建하는 것이 有利하다(利建侯)”고 하여 건국초기에는 먼저 分封하여 建侯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하여서, 宗親으로 울타리를 치던 統治사상을 찾아 볼 수 있는 適例이다.

7. 身分階級과 禮

(1) 君子와 小人之 禮

易經에 나오는 身分階級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階級이 君子와 小人이다. 君子라는 단어는 20회 나오고, 같은 의미인 大人이 12회 보이고, 小人은 11회나 나오고 있다. 여기서 君子나 大人은 貴族階級을 지칭하는데 구체적으로 天子·大君·國君·王·公·侯·王母·丈人·武人·王臣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한편 小人은 平民階級을 지칭하되 구체적으로 邑人·丈夫·小子가 대표적이지만 臣妾·童僕이나 奴隸·罪人을 포함한다. 이러한 身分階級이 생긴 원류는 天命을 받은 자가 천자로서 君主가 된다는 天命사상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君主가 되려면 上天으로부터 天命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은 周나라에 와서 周公이 확립한 것으로, 이 天命에 관한 占辭로 대표적인 것이 地水師卦의 上六의 爻辭인 “大君이 天命을 받아서, 開國하고 承家한다. 小人은 쓰지 않는다”이다. ‘大君’은 君

44) <師·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子중에서 큰 君子라는 용어로 곧 천자가 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가 천자가 되려면 하늘로부터 天命이 내려와야만 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占辭이다. 大君이 천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 爻辭는 ‘開國’ 과 ‘承家’ 를 제시하면서 小人인 庶民을 등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承家가 宗法제도라면 開國은 封國하여 建侯하는 封建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師卦의 上六은 天命사상과 함께 封建制度를 같이 天命한 占辭로 주목된다. 이 밖에 天命을 나타내는 占辭로 따로 天地否괘의 九四의 爻辭에 “王命이 있다. 허물이 없다. 무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천자의 封建諸侯하는 제도를 지칭하고 있다.⁴⁵⁾ 또 火天大有괘의 上九인 “白天佑之 吉无不利”도 天命을 받은 천자의 행위는 상천이 도우는 까닭에 항상 길하여 불리한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되어서 天命사상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

君子와 小人을 구별하는 身分제도는, 점치는 사람의 身分階級이 다르면 같은 占卦라도 길흉을 달리 예언한 占辭가 있어서 주의를 끈다. 산지박괘의 上九의 爻辭에 “큰 과일을 안 먹는다. 君子는 수레를 얻고, 小人은 오두막이 헐린다”는 占辭는 貴族階級과 庶民階級에 따라서 길흉의 결과가 다른 이른바 同卦異占의 대표적인 경우인데,⁴⁶⁾이런 종류의 占辭는 이 밖에도 天山遯괘의 九四에 “好遯이다. 君子는 吉하고, 小人은 否이다”,⁴⁷⁾ 雷天大壯卦의 九三에 “小人은 用壯하고, 君子는 用罔한다”,⁴⁸⁾ 雷水解卦의 六五에 “君子는 묶인 것이 풀리니 吉하다. 小人은 罰을 받는다”,⁴⁹⁾ 澤火革卦의 上六에 “君子는 豹變하고, 小人은 革面한다”는 것이 있다.⁵⁰⁾ 또 나아가서 夬수미제괘의 九四 爻辭가 “震이 鬼方을 정벌하여 삼년 만에 대국으로부터 賞을 받는다” 인데도,⁵¹⁾ 수화기제괘의 九三의 爻辭는 “고종이 鬼方을 정벌하여 삼년 만에 이겼다. 小人은 쓰지 마라”고 하여,⁵²⁾ 두 占辭가 모두 鬼方을 정벌하여 三年만에 승리한 점에서 같은 狀況을 전제로 하는 경우인데도 貴族은 항상 賞을 받으나 小人은 褒賞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⁵³⁾ 이처럼 易經에는 周初의 점치는 사람의 身分階級적인 차별이 점의 길흉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45) <否·九四> 有命, 无咎, 疇离祉

46) <剝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剥廬. 다만 <易經>에서 이처럼 사용되던 君子와 小人의 의미가 孔子의 <易傳>에서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道德仁義를 갖춘 者를 君子라 하고 갖추지 못한 자는 小人이라하는데, 그후 儒家는 孔子가 정의한 의미로 君子와 小人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을 傳統적으로 常用하여 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7) <遯·九四> 好遯 君子吉 小人否

48) <大壯·九三> 小人用壯 君子用罔

49) <解·六五> 君子維有解 吉 有孚于小人

50) <革·上六> 君子豹變 小人革面 征凶 居貞吉

51) <未濟·九四> 震用伐鬼方 三年 有賞于大國

52) <既濟·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53) <未濟·九四> 震用伐鬼方 三年有賞于大國 <既濟·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2) 士農工商의 禮

또 <昭力> 제3장에는 孔子가 商夫와 邑餘와 戎夫와 處女의 禮를 설명한 글이 있다.⁵⁴⁾ 즉, 乾의 潛龍은 商夫의 義요, 无妄卦는 邑餘의 義요, “경작과 수확을 하지 않는다”는 戎夫의 義요, “달이 보름이 지났다”는 것은 處女의 義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뿐 자세한 해석이 없다. 먼저 商夫는 商人階級을 지칭하는데 어떻게 君道를 논하는 潛龍으로 설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邑餘는 邑里의 長을 말하니 벼슬이 없는 士人階級이 담당하는 직종이다. 士人은 본래 支配階級이었기 때문에 武術과 禮儀를 갖춘 知識階級이므로 전투시에는 士로서 참전하고 평화시에는 卿大夫를 도와서 마을 일을 처리하니, “바르지 않으면 災皆鬻媽이 생긴다”는 无妄卦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戎夫는 軍人階級이니 당연히 집단 노동으로 운영되는 농경에 專念할 수가 없으므로 “경작과 수확을 하지 않는다(不耕穫)”는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處女는 가정에 있는 婦女子를 가리키는데 왜 “보름이 지났다”라고 설명하였는지 자세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昭力> 제3장은 비록 자세한 설명을 곁여하여 이해하기 困難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職業에 따라서 禮가 서로 다르다고 구별하여 설명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8. 師弟間의 禮

(1) 스승의 禮

無知蒙昧한 童蒙을 교육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山水蒙卦의 卦辭에 “내가 童蒙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童蒙이 나를 구한다. 처음 占치면 가르쳐주지만, 再三 占을 치면 冒瀆하는 태도이니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占辭는,⁵⁵⁾ 弟子가 스승을 찾아 다니던 당시의 교육제도를 보여주고, 동시에 스승이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로 제자를 가르쳐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적다는 엄격한 스승의 禮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蒙卦의 六四에는 “訓育이 困難한 제자는 어렵다(困蒙吝)”고 하여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제자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六五에는 “잘 배우는 童蒙은 吉하다(童蒙吉)”고 하여 우수한 제자가 있어서 吉하다고 한다. 스승을 가리키는 九二의 爻辭는 “蒙昧한 학생을 包容한다. 吉하다(包蒙吉)”고 하여 스승은 困蒙과 童蒙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제자로 包容하는 雅量을 가져야만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占辭로 보인다.

(2) 體罰의 禮

蒙卦 初六의 爻辭에 “童蒙을 啓發한다. 刑人을 用하는 것이 이롭다. 족쇄와 수갑을 벗긴다. 가도록 두면 어렵다”는 占辭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罰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당시의 體罰論을 펴고 있다. 다만 體罰을 이용하자는 蒙卦의 初六 “利用刑人 用脫桎梏

54) 乾之潛龍 商夫之義也, 无妄之卦 邑餘之義也, 不耕而穫 戎夫之義也, 良月畿望 處女之義也 <昭力> 제3장

55) <蒙> 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以往吝”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네가지 학설이 대립하였으니, 교육에 刑人이라는 體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體罰을 ‘桎梏’으로 보느냐 아니면 蒙昧를 ‘桎梏’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끊는 부분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라지고 있다. 즉 “人을 刑하는 것이 이롭다. 體罰이라는 桎梏을 잠시 풀어주기도 한다. 계속 刑人만 하면 吝하리라”고 보는 견해와,⁵⁶⁾ “人을 刑하는 것이 이롭다. 體罰이라는 桎梏을 풀어주어 주기만 한다면 吝하리라”고 보는 견해와,⁵⁷⁾ “人을 刑하여서 蒙昧라는 桎梏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 계속 刑人을 하면 吝하리라”고 보는 견해와,⁵⁸⁾ “人을 刑하는 것은 蒙昧라는 桎梏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刑人을 하면 吝하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⁹⁾ 모두가 教育에 體罰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되지만, 마지막의 解釋이 蒙卦에서 말하는 用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9. 祭祀의 禮

<易經>에는 王이 직접 祭官이 되어서 祭祀를 지내는 占辭가 자주 등장하는데, 戰爭과 祭祀를 國家의 大事로 취급하던 古代의 풍습이 반영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의 祭祀는 규모가 매우 크고 성대하므로 祭需로 쓰는 물량이 엄청나서 소가 300마리 羊이 50마리 정도 犧牲되기도 하므로 國家재정상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祭祀로 숭배한 대상은 帝라고 부르는 天帝 내지 上帝와 先王을 위시한 祖上神과 토지와 농사를 대변하는 社稷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당시에는 上帝나 社稷이나 祖上의 靈魂들이 하늘에서 自身들을 도와야만 所願이 이루어져서 子孫이 번창하게 하고 豐年이 들게 해주며 戰爭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豐年을 의미하는 火天大有卦의 上九에 “하늘에서도 온다. 길하여 불리한 것이 없다”고 한 爻辭에서 읽어 볼 수 있고,⁶⁰⁾ 勝戰에 관한 火地睽卦의 六二의 爻辭는 “큰 福을 王母로부터 받는다(受茲介福于其王母)”고 하여 죽은 祖上神이 승리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易經>에는 王이 구체적으로 祭祀에 관여한 것을 나타낸 점사와 그렇지 않은 점사가 있다. 澤雷隨卦의 上六, 風雷益卦의 六二, 地風升卦의 六四의 爻辭와 澤地萃卦와 雷火豊卦와 風水渙卦의 卦辭에는 王이 친히 祭祀를 지내는 占辭가 나온다.⁶¹⁾ 王이 祭官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는 澤水困卦의 九二와 九五의 祭祀가 있다. 이하에서 祭祀와 관련된 占辭를 내용별로 묶어서 당시의 祭禮를 정리해 보자.

56) 當痛懲而暫舍之 遂專用刑以往則吝. 同旨: 王弼·孔穎達·蘇軾·朱子·胡炳文

57) 脫桎梏而聽之以王也. 同旨: 王安石

58) 刑之者 正脫去其昏蒙之桎梏 用刑以往則吝. 同旨: 程頤·趙汝模.

59) 刑之初 正所以脫其桎梏也 過此以往吝· 同旨: 郭忠孝·郭雍·朱震·項安世.

60) <大有·上九> 自天祐之 吉无不利

61) <隨·上六> 王用亨于西山. <升·六四> 王用亨于岐山. <益·六二> 王用亨于帝. <萃> 亨 王假有廟. <豊> 亨 王假有廟. <渙> 亨 王假有廟. 朱子は 위에 나오는 “亨”字들만 “祭享의 亨”字로 해석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亨通한다”로 해석한다. 그러나 高亨은 占辭에 나오는 亨字를 모든 경우에 “祭祀지낸다”는 亨字로 해석한다. 高亨, <周易古經今注>, 中華書局, (1984), 42面.

(1) 祭日과 祭壇

王이 祭祀를 지내는 시점을 살펴보면, 원래는 사철을 통해 定期的으로 祭祀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삿날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澤火革卦의 六二에 “제삿날을 바꾼다(巳日乃革之)”는 爻辭가 나오는데, 실제로 <禮記>의 郊特牲篇에 보면 祭日을 龜卜으로 점쳐서 길일로 정하는 禮法이 나온다. 그러나 易經에 나오는 祭祀는 정기적인 祭祀가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지내는 不定期的인 祭祀들이다.

隨卦의 上六의 祭祀는 “잡아 두었다가 이에 풀어 보내준다. 王이 서산에 祭祀지낸다”는 爻辭로 미루어 보아,⁶²⁾ 文王이 紂王한테 잡혀서 羑里에 감금되었다가 구명운동으로 풀려난 뒤에 本國에 돌아가서 무사히 귀국한 것을 감사한다는 祭祀를 西山에서 지낸 故事를 이야기한 경우이다. 升卦의 六四의 祭祀는 “王이 岐山에서 祭祀지낸다. 吉하여 허물이 없다”는 경우로 그 구체적인 故事는 武王이 南征할 때에 지낸 祭祀라는 설이 있다.⁶³⁾ 두 경우에 祭壇은 西山 내지 岐山에 있는 宗廟에다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先王에게 올린 祭祀로 보인다.

益卦의 六二의 祭祀는 “王이 上帝에게 지내는 祭祀이다. 吉하다”로 되어 있어서 고사를 알 수가 없으나, 益卦가 洛邑을 건설하던 周公의 故事와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새로 만든 洛邑에서 祭壇을 차린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이 ‘帝’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大有卦의 ‘天’이 아니고 上帝인 天帝에게 올리는 祭祀이다.⁶⁴⁾

澤地萃卦의 卦辭에 나오는 “王이 宗廟에 간다.”고 하고 “大牲을 쓰는 것이 吉하다”는 占辭는 도적이 출몰할 때나 중병을 앓을 때 지내는 祭祀로 보이는 데 祭需로 大牲을 권하는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祭祀임을 알 수 있다. 風水渙卦에서 말하는 祭祀는 “王이 종묘에 간다”고 하여 萃卦와 같이 宗廟에다 祭壇을 진설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渙卦의 卦名에서 洪水등 水災가 있을 때에 지내는 祭祀로 보인다. 이처럼 祭祀지내는 場所인 宗廟는 궁궐의 좌측에 두는데, 여기는 先王을 祭祀지내는 곳이다. 한편 궁궐의 右側에는 社稷廟를 두어서, 여기서는 토지신인 社와 농사신인 稷을 祭祀지내는데 주로 그 지방에 고유한 山川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雷火豊卦의 祭祀는 爻辭가 “王이 이에 간다”고 하고 “日中에 祭祀를 지내라”고만 되어 있어서 祭祀時間만 정해두고 祭壇을 설치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특이한데,⁶⁵⁾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祭壇을 설치하여 祭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天火同人卦의 上九의 爻辭에서 “동인이 郊外에서 모인다”는 경우에 지내는 郊祭가 郊外에다 祭壇을 마련하는 경우처럼,⁶⁶⁾ 豊卦의 祭祀도 경우에 따라서 제단을 적당한 곳에 설치했던 것 같다.

62) <隨·上六> 拘係之 乃從維之 王用亨于西山

63) 胡樸安, <周易古史觀>, 上海古籍出版社, (1986), 200面

64) 李大用, 前揭書, 139面

65) 豊 王假之 勿憂 宜日中

66) <同人·上九>에 “同人이 郊外에서 만나다.(同人于郊)”는 것을 <禮記>의 郊特牲篇에서 말하는 郊祭라고 해석한다면 冬至날의 祭天을 이야기한 占辭로 볼 수 있다. 郊之除夜 迎長日之至也 大報天而主日也 兆于南郊 就陽位也 <禮記·郊特牲>

(2) 祭官

祭祀에 참여하는 祭官이 王 이외에 누가 있는지 설명하는 占辭가 있다. 당시의 祭祀는 王이나 諸侯가 天帝에 대한 祭祀儀式을 통하여 자신의 선택받은 지위를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행사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의 異姓貴族들과 같이 동일한 祭祀에 참석한다는 정신적인 同志意識을 가져보는 시간이 된다는 의미도 중요했다. 특히 社稷廟에서 지내는 祭祀나 山川에 지내는 토속적인 祭祀는 같은 同志라는 일종의 일체감을 통하여 군신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서 臣下들도 祭官으로 참석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생각한 것 같다. <禮記>에 보면 “천자가 祭祀를 지낼려고 하면, 먼저 연못에서 활 쏘기를 하여 祭官을 가려낸다. 활을 쏘아서 명중한 자는 祭祀에 참여하는 祭官이 되고 명중하지 못하면 祭祀에 참여하지 못한다. 祭祀에 참여하지 못하면 ‘讓’이 있어 토지를 일부 포기하고, 祭祀에 참여하면 ‘慶’이 있어 토지를 더 얻는다.”고 한다. 당시에 왕과 같이 祭祀에 참여하는 것은 이처럼 實益이 따르는 특혜이었는데, 활 쏘는 射義로 祭祀 참석자를 결정할 풍습 때문에 활 잘 쏘는 것이 명예와 직결이 되었다. 火山旅卦의 六五의 爻辭에 “평을 쏘았다. 화살 하나를 잃었다. 마침내 명예가 있다”고 하는 것은,⁶⁷⁾ 善射者는 祭官의 榮譽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雷水解卦의 上六에 “공이 높은 성벽위에 있는 매를 쏘아서 잡는다. 불리한 것은 없다”고 하는 爻辭도 그 諸侯가 善射하여 祭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한 것이고,⁶⁸⁾ 반대로 水風井卦의 九二에서 “井谷에서 붕어를 쏘아 잡는다. 甕器를 깨어서 물이 샌다”는 것은 善射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는 占辭이다.⁶⁹⁾

(3) 祭需와 祭器

身分階級에 따라서 祭物의 종류도 정해져 있다. 주로 易經에는 소·양·돼지와 같은 가축과 술이 등장하는데, 이런 祭需는 貴族의 祭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술은 祭祀時에 먼저 땅에 뿌려서 귀신을 강림하게 하는 제물이다. 風地觀卦의 卦辭에 나오는 “술은 땅에 뿌렸으나 제물은 아직 안 올렸다”는 말은,⁷⁰⁾ 貴族階級의 祭祀를 나타내고 있다는 글이다. 그러나 庶民은 농작물을 제수를 올리는 薦禮만 허용되고 鬯酒라는 술을 뿌리는 盥禮나 큰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는 薦禮는 할 수가 없었다.

또 庶民이 올리는 소박한 고기종류인 제수는 반드시 띠나 갈대로만 싸서 祭祀상에 올리게 되어 있고 鼎俎인 술과 祭器를 사용할 수 없었다. 반대로 貴族들은 반드시 鼎俎에다 고기를 담아서 祭祀에 올리게 되어 있다. 天地否卦의 六二의 爻辭에 “고기를 찌다. 小人은 길하고 大人은 막힌다”고 한 것은,⁷¹⁾ 大人이 형편상 鼎俎가 없어서 띠나 갈대로 싸 고기를 祭

67) <旅·六五> 射雉 一矢亡 終以譽命

68) <解·上六> 公用射隼于高墉之上 獲之 无不利

69) <井·九二> 井谷射鮒 甕敝漏

70) 觀 盥而不薦 有孚颙若

71) <否·六二> 包承 小人吉 大人否 亨

祀에 올리는 것을 祭禮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占辭이다.

易經에는 俘虜가 祭祀와 관련된 占辭에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⁷²⁾ 즉 澤地萃卦의 六二의 爻辭와 地風升卦의 九二의 爻辭에 “孚乃利用禴”이라는 占辭가 있다. ‘禴’은 春祭나 夏祭를 이야기 하는데, ‘孚’에는 誠意의 뜻과 勸의 뜻 이외에 俘虜의 뜻이 있으므로,⁷³⁾ “俘虜인 捕虜를 禴祭에 이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禮記>에는 人牲에 관한 기록이 없는 걸 들어서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風地觀卦의 卦辭에 나오는 “盥而不薦 有孚颙若”에서 “아직 薦禮를 하지 않았다”는 글에 이어서 “俘虜가 크다”는 말은 덩치가 큰 捕虜를 祭物로 올리는 薦禮를 준비하는 광경을 연상하게 하면서 人牲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 외에 祭需와 관련된 占辭로는, 澤地萃卦 卦辭에는 “大牲을 사용하면 吉하다(用大牲吉)”는 占辭가 있어서 제물을 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重火離卦의 卦辭에 “암소를 기르면 吉하다(畜牝牛吉)”는 것은 祭需用으로 쓸 가축은 반드시 그 길흉을 점친 후에 길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占辭이다.

(4) 祭典과 恭敬

祭禮의 순서나 제주의 公경스런 태도는 당시에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易經에 들어 있다. 風地觀卦의 卦辭인 “盥而不薦 有孚颙若”에서 “술은 땅에 뿌렸으나 제물은 아직 안 올렸다”는 前半의 占辭는 鬯酒를 먼저 뿌려서 地神을 밟고 나서 그 뒤에 제수를 올리는 순서를 보이고 있다. 盥禮는 올렸으나 薦禮는 안 올렸다는 것은 祭典의 차례를 말한 것이다. 後半의 占辭인 “有孚颙若”의 의미를 “俘虜가 크다”로 안보고 “誠意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에서는, 觀卦가 祭祀지내는 祭官들의 恭敬하는 태도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卦라고 본다.⁷⁴⁾

風澤中孚卦의 卦辭인 “새끼 돼지와 물고기라도 吉하다(豚魚吉)”는 것은 ‘中孚’ 즉 誠意가 있다면 번번찮은 祭需인 돼지새끼나 물고기를 올리더라도 吉한 祭祀가 된다는 말로, 祭祀에는 선조나 상제나 산천을 진정으로 公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水火既濟卦의 九五에 “東隣에서 소 잡아 지내는 祭祀가 西隣에서 지내는 禴祭가 실속있게 福을 받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西隣의 정성있는 간소한 祭祀가 東隣에서 지내는 성의없는 거창한 祭祀보다 바람직하다고 한다.⁷⁵⁾

(5) 貞問吉凶

祭祀에 관한 길흉을 말하는 占辭는 항상 吉하다고 되어있다. 澤水困卦의 九二와 九五에

72) 郭沫若의 학설이다. 高亨, <周易大傳今注>, 290面.

73) 高亨, <周易大傳今注>, 81面

74) 종래의 通說이다.

75) <既濟·九五> 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實受其福

“利用享祀” “利用祭祀”라는 占辭가 그 예이다. 祭祀가 상제나 선조에게 祈福하는 행사이므로 당연히 吉하다는 점단만이 허용되었던 것 같다.

10. 軍事의 禮

商周시대에 軍事문제는 祭祀와 함께 國家의 重大事에 속한다. 그러나 당시의 軍事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易經>에 남아 있는 占辭가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易經에는 軍隊와 戰爭에 대한 占辭가 여러 종류 등장한다.

먼저 軍隊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卦인 地水師卦는 卦名에서 알 수 있듯이 軍師와 戰爭에 대한 대표적인 卦로서 卦辭와 爻辭가 모두 軍사와 戰爭이야기 뿐이다. 또 戰爭을 전적으로 다룬 卦로는 火地睽卦가 대표적인데, 睽卦의 卦辭를 보면 周初에 康侯가 王命을 받들어서 征伐에 나가 勝利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⁷⁶⁾

(1) 將帥

구체적으로 師卦의 占辭를 통하여 軍사에 관한 예를 살펴 보면, 먼저 將帥의 資質을 중요시하는 占辭로 師卦의 卦辭인 “戰爭을 점칠 때는 丈人이라야 吉하다(師貞丈人吉)”가 있다. 丈人の 의미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으나 軍사와 戰爭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험이 많고 노련한 將帥’라고 해석하는 朱子의 해석이 무난하며, 丈人을 大人의 誤字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⁷⁷⁾ 師卦 六五의 爻辭 중에 “長子가 軍師를 統率하는데, 次子가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온다. 占이 凶하다”고 한 것은 兄인 長子가 軍司令官이 되자 자기 동생인 次子를 指揮官으로 삼아 戰爭을 수행한다면 親戚이라는 私情으로 임명한 무능한 指揮官의 誤判으로 敗戰하여 戰死者를 싣고 오게 된다는 점단이라고 하는데,⁷⁸⁾ 이 占辭는 長子인 大宗만을 존중하는 宗法제도의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睽卦 六三의 爻辭가 “모두가 信賴한다. 후회 없다”고 한 것은 軍士들이 모두 將帥를 신뢰한다면 戰爭에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는 占辭로, 將帥가 자질에 문제가 없어서 모두가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신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⁷⁹⁾

(2) 軍律

地水師卦 初六의 爻辭인 “軍隊는 軍律이 있다. 아니면 強해도 凶하다”는 占辭는 軍隊에 軍律이 있어야 함을 보인 占辭인데, 이 경우 軍律은 軍禮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規律로

76) 康侯는 武王의 동생으로 周나라의 司寇벼슬이었으나 뒤에 康의 諸侯에 봉해졌기 때문에 康叔 또는 康侯라고 한다.

77) ‘丈人’을 王弼은 嚴莊之稱이라 하고, 孔穎達은 嚴莊尊重之人이라 하고, 程頤는 尊嚴之稱이라 하고, 朱子는 長老之稱이라고 한다. 다만 子夏, 李鼎祚, 吳澄, 姚配中, 高亨은 ‘丈人’을 ‘大人’의 誤字로 보고 있다.

78) <師·六五>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高亨, <周易大傳今注>, 94면

79) <睽·六三> 衆允 悔亡

해석해야 할 것이다.⁸⁰⁾ 이 군률을 위반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失禮入刑하는 현상은 軍禮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同卦 九二의 “軍隊의 中軍에 있으니 吉하다”는 爻辭는 장수는 항상 軍營에 거처하고 있으면 吉하다는 占辭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군례가 아님을 나타낸다. 이어서 “王이 세 번 하명한다”는 爻辭는,⁸¹⁾ 한편 王도 자주 軍隊를 돌아 보고 필요적절한 군명을 장수에게 내려야만 軍隊의 紀綱과 軍律이 유지된다는 평상시의 軍禮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師卦의 六四의 爻辭인 “軍隊가 左軍에 陣을 친다. 허물이 없다(師左次 无咎)”는 占辭는 總指揮者로 中軍의 자리에 있지 않는 將帥는 左軍이나 右軍이 되어 그 責任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 뛰어난 자질을 갖추지 않아도 허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3) 訓練과 戰鬪

山天大畜卦의 九三에 “良馬가 달린다. 어려운 占은 이롭다. 말과 戰車를 훈련한다.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는 爻辭는,⁸²⁾ 평소에 전투준비를 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 내용이다. 또 師卦 六三의 爻辭는 “軍隊가 수레에 屍體를 싣는다. 凶하다”인데,⁸³⁾ 戰爭에 패하여 死傷者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것은 軍事의 凶事이므로 평소에 훈련을 잘 하고,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師卦 上六의 爻辭는 戰爭에서 승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글인데, 百戰百勝한다면 결국 천하를 制霸하여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므로, 勝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火地睽卦는 康侯가 戰爭에서 하루동안에 세 번이나 승리를 거두어서 周公에게 전리품인 말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爻辭들은 전투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있다. 예컨대, 睽卦의 九四는 “진격하는 것이 다람쥐 같이 재빠르다. 점이 위태롭다”는 것은 전세가 불리한 占辭이고, 六五에서 “후회 없다. 得失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면 吉하여 不利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주검을 각오하고 勇戰하면 승리한다는 占辭이다.⁸⁴⁾

(4) 作戰計劃

戰爭을 시작하기 전에 작전계획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적의 공격을 방어만 하는 작전에서부터 적군을 全滅시키는 작전까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地天泰卦 初九의 爻辭에 “띠를 뽑는데 줄기채 당긴다. 정벌하면 吉하다”는 것은 적을 완전히 殲滅하는 戰爭이고,⁸⁵⁾ 睽卦 六二의 “진격하여 위협하여 굴복시킨다. 점이 吉하다. 王母한테서 큰 福祿을 받는다”는⁸⁶⁾ 爻辭는 적군을 살려서 항복을 받아내는 전술이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

80) <師·初六> 師出以律 否臧凶

81) <師·九二> 在師中吉 无咎 王三錫命

82) <大畜·九三> 良馬逐 利艱貞 日閑輿衛 利有攸往

83) <師·六三> 師或輿尸 凶

84) <睽·九四> 睽如 虺虺 貞厲. <睽·六五> 悔亡 失得勿恤 往吉无不利

85) <泰·初九> 拔茅茹以其彙 征吉

86) <睽·六二> 睽如 愁如 貞吉 受茲介福于其王母

리품을 노리는 작전도 있을 수가 있고, 노획물에는 관심이 없고 勝利만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火地睽卦의 初六에 “진격하여 적을 꺾는다. 捕虜나 전리품이 없어도 허물이 없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⁸⁷⁾

(5) 大義名分

戰爭은 國家의 증대사이므로 전 국민의 共感帶 形成이 선행되어야만 승전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戰爭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분이 서는 戰爭이라야 國力을 傾注할 수 있는 것이므로, <易經>에서는 王이 친히 전투에 출전하는 占辭가 있다. 重火離卦의 上九에는 “王이 직접 출정하여 적의 머리를 베니 경사로다”고 하여 王이 직접 전투에 나서는 경우를 나타낸 占辭가 있다.⁸⁸⁾ 왕의 親征은 그 戰爭이 天命을 받들어서 행하는 天罰이라는 大義名分을 국내외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또 睽卦의 上九에는 “進擊하여 각축한다. 叛逆한 邑城만 정벌한다”고 하여⁸⁹⁾ 戰爭을 벌리는 데는 大義名分이 있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6) 貞問吉凶

한편, 戰爭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國家의 存亡이 걸린 重大事에 속하므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길흉을 미리 짐쳐 보는 관행이 殷代부터 있었고 그 것은 周初까지 계속되었다. 戰爭의 勝敗나 可否를 豫言하는 占辭로는, 당해 征伐의 吉凶을 이야기한 ‘征吉’과 ‘征凶’이 대표적이다.⁹⁰⁾ 戰爭의 有利와 不利에 대해서, 有利하다고 말하는 占辭로는 “軍隊를 쓰는 것이 이롭다(利用行師)”거나 “침략하여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利用侵伐)”는 표현을 사용하고,⁹¹⁾ 불리하다는 뜻으로는 “軍隊를 쓰지 마라(勿用師)”하거나 “軍隊를 쓰면 마침내 大敗하게 된다(用行師終有大敗)”고 한다.⁹²⁾ 또 防禦戰만 유리하다는 내용인 “賊寇를 방어하는 것이 이롭다(利禦寇)”는 占辭는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⁹³⁾

11. 其他의 禮

<易經>에는 前述한 것 말고도 禮를 나타내는 占辭가 더러 있다. 예컨대 水雷屯卦의 六三에 “사슴을 모는데 물이꾼이 없이 숲으로 들어간다. 君子는 그만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

87) <睽·初六> 睽如摧如 貞吉 罔孚 裕 无咎

88) <離·上九> 王用出征 有嘉折首 獲匪其醜 无咎

89) <睽·上九> 睽其角 維用伐邑

90) <泰·初九>와 <升>卦과 <困·上六>과 <革·六二>와 <歸妹·初九>는 征伐이 吉하다는 占辭인 “征吉”이고, <小畜·上九>와 <大壯·初九>와 <損·九二>와 <困·九二>와 <革·九三>과 <上六>과 <歸妹>卦와 <未濟·六三>은 征伐하면 凶하다는 占辭인 “征凶”이다.

91) <謙·六五> 不富以其鄰 利用侵伐 无不利. <謙·上六> 鳴謙 利用行師 征邑國. <豫> 利建侯行師는 戰爭이 “有利”하다는 경우이다.

92) <泰·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復·上六> 迷復凶 有災眚 用行師終有大敗는 戰爭이 “不利”하다는 경우이다.

93) <蒙·上九>와 <漸·九三>은 “利禦寇”에 해당하는 爻辭다.

고 한 爻辭는 君主가 狩獵할 때에는 반드시 물이를 전담하는 虞人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狩獵時의 禮를 설명하고 있다. 또 風地觀卦의 六四의 爻辭에 “王의 賓客이 되는 것이 利롭다(利用賓于王)”와 天風姤卦의 九二의 爻辭에 “賓客에 不利하다(不利賓)”는 두 爻辭는 賓禮와 관련된 占辭인 것 같으나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또 水天需卦의 九五에 “酒食을 기다린다(需于酒食)”는 爻辭와, 澤水困卦의 九二에 “酒食으로 困難하다(困于酒食)”는 爻辭와, 風澤中孚卦의 九二에 “내게 좋은 술잔이 있으니, 자네와 같이 마시세”라는 爻辭와,⁹⁴⁾ 火水未濟卦의 上九에 “술을 마셔서 罰을 받는다. 허물은 없다. 머리를 적시는 罰이다.”는 爻辭는⁹⁵⁾ 鄉飲酒禮에 관한 占辭로 보인다.

제4. 結 語

위에서 殷末周初에 성립되었다는 <易經>의 占辭중에서 古禮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찾아보았지만, 모든 禮文을 總網羅하지는 못하였다는 未盡한 느낌을 버릴수가 없다. 周나라에서는 禮가 모든 사회질서를 규제하는 제일차적인 秩序規範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易經에 실린 占辭의 大部分이 禮文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古文에 대한 지식이 淺薄하고 <주역>의 수많은 해설서를 博覽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일단 禮를 설명한 것이 두드러진 占辭만 가려서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禮와 刑을 구별하면서 그 중에서 禮에 관한 占辭만 가려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원래 失禮하면 入刑이 되어서 내용적으로 兩者가 섞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간혹 刑에 관한 내용이 混在한 部分도 있을 것이다. <易經>중에서 刑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易學史를 통관해 보면 從來에는 <易經>의 占辭를 義理的으로 해석할 것이나 象數的으로 해석할 것이나 하는 見解의 對立이 심각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易經>이 殷末周初에 일어난 역사적 事件을 易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歷史冊의 성질을 가졌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는 형편이다.⁹⁶⁾ 위에서 禮에 대한 占辭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易經>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事例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만일 從前의 通說이 말하듯이 卦辭는 文王이 짓고 爻辭는 周公이 붙였다고 한다면, 火地睽卦의 卦辭에 나오는 ‘康侯의 遠征’은 文王의 死後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易經>의 作者와 그 年代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考古學의 분야이므로 本稿에서 논할 성질이 아니므로 연구대상에서 除外하고, 오직 古代의 瑰귀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易經>에 접근하여 거기에 나타난 禮의 흔적을 살펴보는 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94) <中孚·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95) <未濟·上九> 有孚于飲酒 无咎 濡其首 有孚失是

96) 胡樸安의 <周易古史觀>과 李大用的 <周易新探>이 대표적인 문헌이다.

위에서 살펴본 禮의 종류가 많지만, 그러나 五禮중의 凶禮인 喪禮에 관한 占辭는 <易經>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은 주의를 끈다. 아마도 <易經>이 占書이기 때문에 喪禮를 言及하는 것을 回避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中庸>은 仁과 義를 根本規範으로 하는 親親과 尊賢이라는 두가지 原理에서 禮가 조직하였다고 하는데,⁹⁷⁾ 원래 ‘親親’은 家族의 집단적인 노동력에 의지하여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農耕社會에서 親戚이라는 혈연을 중시하여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目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仁’이라는 德目에서 유래한 秩序規範이라면, ‘尊賢’은 王族과 貴族으로 구성되는 統治階級이 일반 庶民들을 統治하기 위해서 만든 政治的인 差等原理인 ‘義’라는 德目이 秩序規範化한 것이다. 그런데 이 親親과 尊賢의 原理를 가지고 易經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禮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즉 ‘親親’의 原理는 父子間 또는 夫婦間 처럼 가까운 家族의 상호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父子相承關係로 확대하면 宗法제도로 발전하고, 다시 婚姻과 관련되면 婚禮가 성립되고, 이것을 先祖에게 遡及하여 적용하면 祭禮중에서 祖上에 관한 부분은 설명이 된다. 한편 ‘尊賢’의 原理는 君臣間의 상하관계나 師弟間의 관계 그리고 士農工商의 직업으로 분류하는 身分階級制度의 근간이 되지만, 나아가 軍事에 적용하면 軍禮가 되고 다시 國家制度和 國政에 확대하면 <周官禮>가 되기도 하며, 天命과 관련하여 上帝에 대한 祭祀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中庸>이 제시하는 ‘親親’과 ‘尊賢’이라는 두 개의 原理로 <易經>에 나타난 周나라의 禮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本稿는 ‘親親’과 ‘尊賢’을 禮의 根本規範으로 삼는 <中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資料를 제공한 셈이다.

參 考 文 獻

(中國)

<周易>. 四庫全書
帛書<周易>. 中國 長沙馬王堆三號漢墓 出土
高亨. <周易占經今注> 中華書局 1984
_____. <周易大傳今注> 齊魯書社 1998
胡樸安. <周易古史觀>上海古籍出版社 1986
李大用. <周易新探> 北京大學出版社 1992

(韓國)

金尙變 譯. <고형의 주역> 예문서원 1995

97)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禮記·中庸>

